



이사장 신동우 목사(우)가 진행한 KWMA 제28회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 조용중 목사(좌)가 사역을 보고하고 있다.



신년하례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신년하례예배드려

한국 파송 선교사 증가... 170개국 2만7,436명

KWMA 제28차 정기총회서 발표... "질적 성장 노력해야"

지난 2016년 말 통계상으로는 성장이 멈춘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 수가 다시 231명이 증가한 2만7,436명으로 나타났다. 활동국가 수는 전년 대비 2개국이 줄어 170개국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 안디옥성결교회 행신 성전에서 열린 제28차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12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이 발표됐다. KWMA는 "2015년 이전 증가 수보다 적은 양이 늘었지만, 선교사 파송 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N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한국선교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이번 통계는 선교환경이나 변수들이 비관적이라고 단언하기보다 질적 선교로, 본질을 회복하는 선교로 나아가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통계는 2017년 12월 1개월 간 실시됐으며 KWMA 회원 및 비회원 단체, 산하 협력단체 중 227개 단체(교단 39개, 선교단체 188개)가 응답했다.

통계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는 "이번 조사에 응한 KWMA 회원이면서 파송 선교사 수 100명 이상인 단체

를 비롯해 파송 선교사 수 50명 이상인 비교적 큰 단체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그렇다고 신입 선교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마이너스 증가 수보다 정상적인 선교사 증가 수가 더 많았음을 시사했다. 2014년부터 협력 및 이중 선교사 정리, 외국인 사역자 제외, 단기 사역자들의 귀환 등 단체들의 파송 선교사 '허수' 정리가 이어진 상황에서도 이뤄낸 한국교회의 쾌거다.

한국 선교사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아시아 지역이 1만8,758명으로 65.6%를 차지했다. 이 지역은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주요 종교권 지역으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이점이 있다.

전체 한국 선교사의 절반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10대 파송국은 동북아 X국(3,934명), 미국(2,491명), 필리핀(1,651명), 일본(1,585명), 태국(950명), 서남아 I국(931명), 동남아 I국(850명), 캄보디아(807명), 러시아/연해주(654명), T국(649명) 순이었다. 2016년에 비해 서남아 I국,

동남아 I국에 다른 곳보다 활발히 선교사가 파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사역자, 국내 외국인 사역자, 수습 선교사, 순회 사역자 등 국내 활동 선교사도 600여 명이 넘지만 순위에서는 제외했다.

선교사의 주요 사역(중복응답)은 예년과 같이 교회개척(153개국 1만4,624명)과 제자훈련사역(141개국 9,663명)이 두드러졌으며, 복지/개발, 캠퍼스, 일반교육, 어린이/청소년사역, 의료, 신학교 분야와 함께 문화/스포츠,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 자녀 사역, 비즈니스, 문서 출판 사역, 선교행정과 동원 등 다양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선교사 자녀의 경우 2016년 1만8,810명에서 1만9,661명으로 증가했으며, 추후 응답률을 높여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KWMA는 전했다.

KWMA는 "한국 선교계가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힘을 들인 것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을 찾아가는 일이었다"면서 "지난번 선교사 수 증가가 '0'으로 나타난 결과는 비로소 질적 성장을 위해 거품들이 정리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가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2018년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했다.

8일 오전 11시 다운니제일교회(담임 안성복 목사)에서 1부 예배와 2부 친교시간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차관희 목사(회장)의 인도로 찰스 김 목사(회계)의 대표기도 후 오병익 목사(증경회장)가 설교했다.

오 목사는 히12장 1-2절을 본문으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 목사는 "우리의 목회는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 경주"라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자"고 전했다.

또한 타겟2030(Target2030) 운동과 미래 25개년 계획에서 2016-2020년까지 제3기 전력투구를 지나는 시점에서 다시 증가하는 선교사 그래프는 "위기, 변곡점 등 현상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한국선교를 바라봐야 하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KWMA는 향후 선교사 파송 수가 일정 기간 줄지 않을 것이나, 예전처럼 수천 명 단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 "선교단체가 문을 닫거나, 계속 늘고 있

오충성 목사(서기)의 광고 후 인사를 전한 회장 차관희 목사는 "몇 번이고 회장직을 고사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았다. 중부지역 교회와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 목사는 2017년 회장으로 수고한 최국현 목사(은혜와진리의교회)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예배는 장재원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친교시간에는 다운니제일교회에서 준비한 식사와 함께 최국현 목사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로하고 선물도 전달했다.

제34대 중부교협은 2018년 부활절 연합 예배와 광복절 성가찬양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는 은퇴 선교사 수가 신입 선교사 수를 앞지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신생 단체, 노회 및 개교회 파송 선교사들도 존재하므로 전체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KWMA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선교사 파송 수의 증감에 민감하기보다 통계가 보여주는 큰 그림을 읽어내면서 이제야말로 한국선교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 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Oxford Ave.
 Pico Blvd.
 Serrano Ave.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10K Service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LA 영혼의 샘 | **Holy Spirit Conference**
성령 컨퍼런스

2018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YouTube 유튜브에서 "이순희 목사"를 검색해보세요!

강사 **이순희**
 백송교회 담임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서울신학대학원 M.Div 졸업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집회일정 12차 | 2017/1/16/화 - 2/3/토 (주일은 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시간 - 저녁 7시 30분
 문의전화 424 375 0725 / 213 245 6616
 집회장소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담임목사 **김성식**

변화 시기, 미움, 원망, 교만 등 내적 치유로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변화, 열매 맺는 삶으로의 변화와 성숙

치유 알코올/컴퓨터 각종 중독에서 자유, 기억상실증, 우울증, 공황장애 및 정신질환, 각종 암 등 영육의 질병 치유

기적 찬양, 설교 등의 훈련과 방언, 진동, 신유 및 갖가지 은사 체험, 축귀사역, 영적전쟁의 체계적 이해

해외지부 캐나다 토론토 백송교회 : 647 637 4013 11 Glen Cameron Rd. Thornhill, ON L3T 4N3
 미국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 213 245 6616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한국 인천본부 : 032 469 0191 032 323 12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안산로 231번길 20
 대구지부 : 053 644 0175 대구광역시 월배로 32안길 61 B1
 예배시간: 월금 저녁 7시 30분 / 토 오후 3시

방향하는 영혼들의 섬터
영혼의 샘 지부 안내

교회음악협회, 교회 찾아가 소통할 것

임원회 열고 2018년 사업 계획 논의



2018년을 섬길 협회 임원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가 2018년을 시작하는 첫 임원회의를 지난 6일 개최했다. 2018년을 이끌어 갈 전현미 회장은 “교회음악협회를 알리기 위해 여러 교회와 단체를 직접 찾아가며 가까이 소통하겠다”면서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우리 협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협회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1971년 설립됐다. 올해로 설립 47주년을 맞이했으며 다양한 행사와 활동으로 교회 음악의 발전과 교회 연합을 선도해 왔다. 주요 사업은 남가주 찬양합창제, 학생 찬양경연대회, 창작성가의 밤이 대표적이다. 올해로 제37회를 앞

두고 있는 남가주 찬양합창제는 각 교회 찬양대의 상호교류 및 교회 연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십여 팀 이상이 참여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제5회를 맞이하게 되는 학생 찬양경연대회는 한인 2세 자녀들이 한국어로 찬양하는 대회다. 자녀와 부모의 대화가 줄어드는 요즘, 자녀들이 한국어 찬양을 배워서 부르는 가운데, 세대간 화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7회가 될 창작성가의 밤은 남가주 지역 교회 음악인들이 직접 창작한 곡을 초연하는 행사다. 교회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할 뿐 아니라 서로의 찬양을 듣고 나누면서 남가주 교회 음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별히 이 창

작곡들의 작사는 LA기독교시인협회와 작곡가협회가 맡고 있다.

또 올해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는 CCM 분과, 기악분과, 성악분과, 국악분과 등 하위 분과를 나누어 교회 음악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지역교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교회 음악 세미나, 성가곡 리딩 세미나 등 정례 활동도 올해 그대로 이어간다.

각 교회 찬양대의 지휘자 및 반주자, 독창자, 찬양 사역자들이 이 협회에 참여할 자격이 되며 협회 측은 교회를 섬기는 음악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올해는 전현미 회장과 함께 백낙금 부회장, 강민석 총무, 김혜정 회계, 김지선 서기가 섬긴다. 합창분과는 전요셉, 작곡분과는 이현정, CCM 분과는 랜디 김, 학생분과는 윤진영, 기악분과는 오윤정 씨가 맡게 됐다. 전현미 회장은 2013년 베들레헴 크리스마스 국제 찬양제에 50명의 찬양단과 함께 참여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이태리 합창대회에 동양인 최초로 심사 위원으로 위촉받은 바 있다. UCLA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했다. 현재 웨스트 코스트 챔버 싱어즈의 뮤직 디렉터이며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랩 활용, 한글 및 영어 성경 자동 자막 송출, 복음송 및 찬송가 3000 자막 연습, 고급 자막 프로그램 실습, 장비 견학, 광고영상, 제작 발표 등의 강의를 한다.

장소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내 317호 강의실이다. 문의는 전화 714-525-0088, 이메일 gmu@gm.edu, 카카오톡 gmu3000로 하면 된다.



이상목 목사

29일 저녁 7시에 목회자 능력기도회가 열리고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미나가 시작된다. 목사와 사모가 기도도와 찬양, 말씀으로 영적 회복을 이루는 것이 행사의 목표다. 문의) 714-868-2885

교회 영상 및 자막 제작 공개 강좌

현대 목회 및 선교 사역에 꼭 필요한 영상 및 자막 제작을 위한 실무 강좌가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열린다.

겨울학기 오픈 특강 형식으로 개설되는 이 과정은 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교회 미디어 사역 담당자나 관심자들도 수강할 수 있게 공개된다.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오후

5시 30분에서 11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개인 랩탑 컴퓨터를 준비해야 한다. 청강비는 150달러, 교재 및 간식비는 50달러이다. 나중에 학교에 등록할시 3학점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강사는 IT와 교회 행정 전문가인 제임스 구 교수와 은혜한인교회 미디어 사역을 맡고 있는 이창석 전도사이며, 자막 프로그

이상목 목사, LA에서 목회자 세미나

오는 1월 29일(월), 30일(화) 양일간 오렌지카운티동양선교교회(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5)에서 목회자 세미나 및 능력기도회가 열린다.

지난해 9월 이상목 목사가 강의한 <침과 영성 사모 세미나> 이후

참석자들의 요청으로 이번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목 목사가 강의하게 됐다. 이상목 목사는 미주와 전 세계에서 목회자 성령 컨퍼런스, 사모 영성 수련회, 평신도 영성 회복 집회 등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다.



소망소사이어티가 2018년을 힘차게 시작했다.

소망, 예배로 2018년 시작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1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새로 이전한 사무실(5836 Corporate Ave. #110 Cypress, CA 90630)에서 시무식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2018년을 시작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이사,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지역인사 및 소망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시무식에서는 김미혜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고 김도민 목사(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가 기도했다. 테너 김일두 씨(아르모니아 싱어즈)가 특송한 후, 정영민 목사(포도원교회)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2017년 소

망 사역 사진을 함께 보았으며 최경철 사무총장이 2018년의 계획을 발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최 사무총장은 소망소사이어티의 올해 역점 사업이 지부 설립과 아프리카 차드 지부의 가정 결연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신년사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유분자 이사장은 소망 케어 교실의 이전 소식을 전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수고할 자원봉사 부장을 소개하고 임명했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가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현재는 전화 677-465-5678, 714-321-4776로 연락이 가능하다.



지난해 효사랑 시니어 대학을 졸업한 21명의 모습

효사랑 시니어 대학 개강

효사랑선교회가 시니어들을 위해 개설한 효사랑 시니어 대학의 2018년 봄학기가 1월 16일(화) 오전 9시 개강한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되며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수업 장소는 새영교회(14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다.

합창 음악, 성경 파노라마, 스마트폰 사용법, 그림으로 배우는 성경, 라인 댄스, 난타, 찬양 율동, 생활영어, 건강체조, 탁구, 컴퓨터 등 다양한 수업이 개설된다.

시니어 대학은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목적 아래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는 학훈을 내세우고 있다.

효사랑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는 “시니어는 적당히 여가를 보내며 인생을 흘러 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끝이 좋은 사람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귀한 시기”라면서 “시니어 대학에서 더 값지고 멋진 믿음의 이력서를 쓰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문의) 562-833-5520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김상용 목사 초청 목회자 영성 세미나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변화 될 수 있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1973년 김상용 목사가 7명과 함께 개척해 현재 3만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한국 곳곳과 전세계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교회 웹사이트 : ccfgc.or.kr)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담임)

일시 2018년 1월 15일 (월) 오전 10시~정오 12시
장소 로텍스호텔 세미나룸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대상 목사, 사모, 선교사, 전도사, 평신도 지도자
회비 없음 (점심제공)
주최 기독교일보사 (213)739-0403
주관 종교개혁 기념사업회 미주본부 (213)263-1364

“건강한 교회와 성도 세우고 스스로 개혁하자”

[신년 인터뷰] OC교협 제27대 회장 이서 목사

2018년 새해를 맞아, 한인교계의 각 교회와 단체들도 새로운 희망을 날갯짓을 하고 있다. 본지는 특별히 최근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 제27대 회장에 취임한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 담임)를 만나, 새해 비전과 계획을 들어 봤다. 다음은 이 목사와의 일문일답.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며,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교협은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더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와 사회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기여할 것인가,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기도하면서 임원들과 상의하고, 여러 단체장 및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섬기겠다.

-OC교협의 주요 현안들과 그에 대한 견해는.

450개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에 연합이 최우선 과제다. 많은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교회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것이다. 단체장 및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고 기도해야 한다. OC 지역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독립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연합해서 복음과 지역사회에 덕이 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 행사를 열거나 이름을 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OC교협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일단 전임 회장님들이 퇴임 후 이사로서 계속 도와 준다. 또 많은 장로님들도 후원이사로서 개교회를 넘어 도와 주고 있다. 교협 내부의 분위기가 참 좋다. 이때까지 활동해 오신 분들이 하나님나라와 지역사회 복음화 위해 많이 고민해 오신 것을 느끼고, 많이 협력해서 도와 주려는 분위기도 좋다. 자리 욕심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되고 있다.



이서 목사가 2018년 OC교협의 사역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임기 중 중점 사업을 설명해 달라.

2월에 조찬기도회를 개최한다. 지역사회 단체장과 정치인 등이 모여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드린다. 특별히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국가의 복음화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임은 개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교협만이 가능한 일이다.

매년 개최해 오던 목회자 영성 집회와 사모 블레싱 나잇도 충실히 준비할 것이다. 또 새로 하고 싶은 일은 작은 교회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위한 정기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조찬기도회에서 기독교인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과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들이 더욱 소신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더 큰 꿈을 꾸다면,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서 개인과 개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돕는 운동을

일으켰으면 한다. 그러나 우선은 기도부터 했으면 한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서로 알아가고, 나누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현 시국에 대한 견해와 그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신다면.

시기마다 교협이 교회들을 대표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한다. 우리가 먼저 개혁해야 한다.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주님을 의지해서 해야 한다.

-교협을 함께 섬기는 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개교회를 넘어 교협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신

하자. 하나님나라를 위해 함께 꿈꾸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자.

-지역사회 교인들에게 새해 덕담을 해 달라.

세계에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덕적 타락, 기술 발전, 기후 변화 등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꿈과 비전이 없다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당황하거나 두려워 말고, 주님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결정적 기회로 여겨야 한다.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 쓰임받자.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함께 힘을 모아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일을 공유하고 준비하자. 어려움은 기회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두려워 말고 주님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쓰임받길 바란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실 것이다.



지난 12월 18일 회장에 취임하며 교협기를 전달받은 이서 목사(왼쪽)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연금 하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친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48>

시리아 난민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 (2)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에는 많은 시리아 장기 선교사 가정들과 독신 선교사 그리고 학생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사역을 했다. 그러다가 시리아에 내전이 발발하면서 현지인들이 나라를 떠나 주변 나라들로 전쟁 난민이 되어 수백만 명이 물려 나갔다. 그때 그 선교사들도 자기들이 섬기던 영혼들이 떠나니 그들과 같이 난민 선교사가 되어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 시리아 난민들이 간 나라들은 대부분 한인 선교사들이 다 들어갔다. 중동에는 한국 여권으로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다. 그곳은 미주에서 파송 받아 간 미주 출신 한인 선교사들이 들어갔다. 또 미국 여권으로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다. 그 땅은 한국 파송 선교사들이 들어갔다. 지금 선교는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의 사역 국가의 현지인 교회들이 연합하는 글로벌 얼라이언스 사역이다.

바로 난민들이었다. 먼저는 이란에서 예지디 족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인권 난민이 돼 터키 등 유럽 나라들로 피난 온 이란 난민들이 그들이 머무르는 지역에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교회를 세웠다. 이어 레바논 난민들이 들어오고 마침내 수백만 시리아 난민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 물론 그들 사이에는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그들과 같이하고 있다. 그들은 아랍어권이다. 아랍어로 생활하는 나라들, 시리아, 레바논, 쿠르드, 이집트 등의 민족들이 한 언어권으로 모이고 있다.

필자는 선교 사역지에서 여러 교단 파송 사역자들과 선교단체 사역자들과 만남을 갖는다. 각 단체들마다 매우 성공적으로 현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많다. 어느 선교단체는 예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이 강하다. 어느 선교단체는 평신도 전문인들이 열방 곳곳에서 전문인 사역을 펼친다. 어느 단체는 전도와 선교 동원에 독보적이다.

중국의 선교적 교단들은 이슬람권 선교사 파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들이 아랍어를 배운다. 한인 사역자 중에도 아랍어권 전문 사역자가 셀수없이 많아졌다. 이슬람이 이미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난 10년 그 땅들은 쉽없이 변했는데 여전히 이 땅의 교회와 지도자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고 있다. 교회는 선교다. 선교의 야성을 교회가 회복하기를 기도한다. 선교대 사명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자. 부담된다고 말하지 말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지 말자. 교회여, 선교부흥을 회복하자.

그런데 그 모든 단체들이 저마다 강점인 사역을 펼치면서 하나 되게 하는 목표가 있다. 바로 교회 개척이다. 이슬람권에서 교회 개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사역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후방의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어렵다. 안 된다 하며 부정적 마음을 가졌던 지난 10년, 하나님은 그 이슬람 땅에 영적인 선교의 물꼬를 트시기 시작했다.

<계속>



시리아 난민과 터키인 그리고 이집트 사역자들의 연합예배 모습

“말라위 교회 성도 도우며 복음 전파까지”

미국의 개인이나 단체, 교회가 말라위 농촌 지역 교회와 성도를 도우면서, 동시에 그 성도들을 통해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후원 프로그램을 사랑의 곡식 선교회(Crops of Love Ministries, 아프리카사랑재단)가 소개했다.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인 말라위에서 활동하는 사랑의 곡식 선교회 김용진 선교사는 ‘원어나더(One Another)’라 불리는 이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를 위한 도움을 얻게 되고, 후원자들은 말라위 성도들을 통해 말라위 지역 사회를 개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게 되는 식이다. 만약 200시간 봉사를 하면 50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는 말라위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이를 통해 교회와 성도의 경제적 자립도 도모할 수 있다.



말라위 교회 성도가 이웃 주민을 위해 물을 길어다 주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조는 이렇다. 말라위에 있는 현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주변의 장애인, 독거노인, 노약자를 찾아가 생존에 시급한 식수를 제공하거나 농사 일을 해 준다. 쉽게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며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말라위의 가난한 성도들이 이 일만 해서는 그들의 생계가 어렵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이 말라위 성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한 시간당 미화 25센트를 계산해 사례비를 후원해 준다. 말라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한 도움을 얻게 되고, 후원자들은 말라위 성도들을 통해 말라위 지역 사회를 개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게 되는 식이다. 만약 200시간 봉사를 하면 50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는 말라위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이를 통해 교회와 성도의 경제적 자립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말라위 교회와 후원자는 스카이프나, 카카오톡으로 직접 소통하며 어떤 사역이 이뤄졌는지,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송금은 사랑의 곡식 선교회가 대행하고 있다. 남가주 플라센티아의 질그릇교회(김태길 목사)와 말라위의 마징가교회가 지난 석달 동안 이 프로그램에 따라 동역했으며 현재까지 기대 이상의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

다고 한다. 사랑의 곡식 선교회는 미 연방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있으며 모든 후원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 714-732-1687 cropslovelove@gmail.com www.cropslovelove.com

● 행복설계사 강태광 목사 칼럼

죽음을 각오한 사랑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제법 오래전 어느 다복한 가정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일곱 살 난 아들과 다섯 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 여행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아들에게 급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수술이 가능한 사람은 팔밖에 없었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단다.”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고 오빠에게 피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어린 꼬마의 마음이 참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양보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엄마와 딸이 싸우면 대부분 엄마가 집니다. 왜요? 엄마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희생이 있고, 양보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은 손해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많은 교회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참 사랑을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양보가 없는 사랑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헌신, 희생 그리고 양보가 없는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새해에 사랑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을 위하여 양보하고, 사랑을 위하여 헌신할 각오와 다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생의 피를 수술 받으며 아들은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인 수술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온 가족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펄쩍 펄쩍 뛰며 좋아하던 아빠와 엄마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얘야,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그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요! 잘 되었네요.” 이렇게 말하며 딸은 파랗게 질린 채로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요,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아빠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나?” 어린 딸이 대답합니다.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네가 피를 오빠에게 주면 죽는 줄 알았니? 너는 네가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겠다고 했던 말이나?”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꼬마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ince 1999

www.e-nca.org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오픈 하우스 1월 25일(목) 7pm



무료 앱 다운로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명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순종의 신앙

신명기 8:1-1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는 인격적인 결합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영적 가치와 체질과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심

1절과 2절을 분석해 보면 양면성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신 8:1)”

1절은 소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쟁기고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세상 종교는 정성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요구하시고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십니다. 신앙보다는 신념을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해보다 안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가짜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 따르면 그들은 자격보다는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모든 조건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2. 낮추시고 뵈으시고 시험하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신8:2)”

40년의 세월은 사람의 일평생의 절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격된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길을 끌고 다니십니다. 직행하면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빨리 걸으면 가나안 땅까지 10일에서, 천천히 하는 12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도록 하시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전쟁까지 하게 하시며 여러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기

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한 400년의 1/10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이대로는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합격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험과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견게 하였고 낮추셨습니다.

허세와 교만을 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을 삼기 위해 낮추시고 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들 중에서도 직분에 맞는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없이 허세와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낮추시고 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계속하여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테스트(test)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신자들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합격점에 오르게 하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둘째로 템테이션(temptation)입니다. 이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3.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씀 절대주의 신앙

누가복음 5장 2절 이하를 보면 많은 무리들이 해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빌리시고 해변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은 말씀들을 확인시켜주실 필요를 느끼시고 한낱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하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맑은 갈릴리 바다에 한낮은 햇빛이 그대로 투과되어 바닥이 보이고 고기들 또한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낮에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언제나 고기를 밤에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특히 낮에 그물을 내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며 그 심령이 불들리기 시작했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전문 지식으로도 밤새 헛수고를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한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오라하여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고 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말씀 선포하는 제자로 삼기 위해 나타내신 말씀 권

능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믿도록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입체적인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아 얼마나 서둘러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는가를 잘 믿는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은 엄청난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주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낮추시고 굽게 하십니다.

4. 만나로 먹여 주시는 하나님

굵으면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겠으나 영적으로는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의 합성체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잘 믿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직분을 맡길 때 목에 힘을 주고 ‘곤란한데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조건을 위해 정면으로 부인하니 ‘너는 소망이 없어’ 하시며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거두시고 너의 맘대로 살다가 지옥이나 가거라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 겸손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육신을 목적으로 살면 안됩니다. 영으로 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소망으로 우리 모두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는 나일론으로 만든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우리들의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옷이었습니다. 3,500년 전에 어떻게 그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갈쌈도 못하고 구름이 올라가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 비비며 천막 거두고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천막을 치다가도 갑자기 구름이 또 올라가면 다시 천막을 거두고 또 떠나야 하는 처지의 삶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도, 건강도, 먹여 살리는 것도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로 인도하시고 땅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는 분천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Happy

해피여행 프로젝트

가족 & 친구

춘천에서 추억만들기

그 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 & 친구들과 함께 춘천에서
즐거운 추억만들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출발~ !!!

1

친구와 추억 만들기
(4박 5일)
4.23(월)~4.28(금)

2

가족과 추억 만들기
(4박 5일)
4.30(월)~5.5(토)

추억만들기 내용

1. 시내투어 : 겨울연가 드라마 촬영지, 군함도 세트장
2. 춘천전통 풍물 5일장(영상기록 만들기 ~ 실버TV 리포터 체험)
3. 양구(DMZ)투어 or 봄나물 채취, 감자가루 만들기

* 경비: \$1,599 (항공료 포함)
* 마감 : 2월 28일까지 (각각 선착순 10명)

주관 한인여행사(Hanin Travel), 실버 TV USA
문의 T.(213)387-5949
621 S. Virgil Ave. Suite 230, Los Angeles, CA 90005
email: hanintravel17@gmail.com

www.sellacare.com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 혈 관 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 졸 증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웨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랜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원	714.333.7866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4399.6247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PCUSA

동성결혼 위한 예배서 발간

동성결혼 인정한 교단의 결정에 따른 것

미국장로교(PCUSA)가 동성애자들을 위한 통합적 언어가 담긴 새로운 결혼예배를 포함한 예배서(Book of Common Worship)를 발간할 예정이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3일,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최신판 예배서가 오는 5월 공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PCUSA 교단지 'Presbyterians Today'는 최신판의 큰 특징으로 결혼식을 위한 '통합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 매체는 "개정된 결혼식은 통합적 언어와 유연한 형식이 특징이며, 모든 형태의 커플과 가족들에게 유용하게 되어 있다"면서 "결혼 서약을 갱신하길 원하는 이

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에 걸맞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또한 이혼의 기록을 남기길 원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예배서의 공동 저자이자 PCUSA 노회선교기관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캠프벨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변화는 결혼의 정의에 동성커플을 포함시키는 한 교단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PCUSA 교단은 지난 2014년 제221회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사람,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변경했다.

강혜진 기자



무디신학교 전경 © 위키피디아

등록생 급감한 무디신학교

일부 캠퍼스 폐쇄 · 교수진 감축

학교 측 "학교의 미래 위해 더 나은 조치"

무디신학교(Moody Bible Institute)가 등록 학생 수 감소와 진보적인 교수진, 학교의 사명과 맞지 않는 행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그러나 "최근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학교의 미래를 위해 더욱 나은 조치이며, 최근의 우려 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시카고의 무디신학교는 장기간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워싱턴 주 스포케인 캠퍼스와 캘리포니아 주 패서디나의 원격교육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시카고 캠퍼스의 교수진들은 감축될 예정이다. 현재 학생 등록률은 심각하게 감소한 상황이다.

무디라디오 '업 포 디베이트'(Up For Debate) 프로그램 진행자인 줄리 로이스는 최근 웹사이트에 "무디신학교는 현재 전례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디신학교 행정위원회 신탁이사회는 12일 폴 나이퀴스트 총장과 회의를 갖고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않는 교수들에게 교육과정 논의와 수

업을 허용한 것을 비롯해 행정부에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을 열었다. 그리고 "낙태를 장려하는 미국 가족계획협회나 진보적인 신학 등을 지지하는 교수진들이 선교 콘퍼런스에서 강의를 맡고 이를 진두지휘하는 점, 고위급 공직자들이 학교를 역차별하여 반복적으로 학교 회칙을 위반하도록 허용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또 "무디신학교의 학위 인증기관인 고등학습위원회(The Higher Learning Commission)는 '학교 측은 반드시 교수진과 경영권을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 일부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질책을 받거나 해고됐다고 지적했다.

무디신학교는 미국 복음주의자인 D. L. 무디의 이름을 따서 지난 1886년 시카고에 세워진 신학교로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배출했다.

강혜진 기자

새해 성경읽기에 대한 파이퍼 목사의 조언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해에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겠다는 결심을 한다. 베들레헴교회 원로 목사이자, DesiringGod.org 설립자인 존 파이퍼 목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파이퍼 목사는 먼저 틈틈히하루에서 나온 성경읽기계획표 'Discipleship Journal Reading Plan'을 추천하며 "1년 동안 성경을 매일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 보라"고 권했다. 그는 "4개의 각각 다른 부분들을 읽으면 1년 동안 성경읽기를 완성할 수 있다. 2개는 구약, 2개는 신약을 읽는다. 신약이 구약보다 짧기 때문에, 신약을 더 빨리 읽게 된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읽기와 좁고 집중적인 읽기가 가능하다. 또 이 성경읽기표는 한달에 25일로 구성되어 있어, 읽지 못한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퍼 목사는 "그러나 더 큰 이슈는 어떤 특정한 성경읽기 방법이나 매일의 읽기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해에 우리가 성경읽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

화롭게 하고, 가장 가치롭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심지어 믿는 자들이라도 해도 감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많은 죄악들이 있다.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다. 그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치, 영화, 아름다움, 위대함, 간절함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바라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보물처럼 여길 수 없다. 만약 그리스도를 바라거나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가장 영화로우실 수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의 초점은 이같은 일은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예배 오후 8: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벤틀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주일예배 오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1부예배 오전 7:15, 성령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우 담임목사. 베헤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엘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박정호 담임목사. 엘바인 침례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주일 인터넷 생방송등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주일 성가예배: 오전 9:00am, 금요일 오후 8:00p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운니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수요기도회 오후 7:30,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새해 맞이 골드 멤버십 정수기 물병 Free

* \$290 월4회 개인 레슨
정회원 한달(무제한 볼사용)



*골프 멤버십 200볼 상당의 정수기 물병 Free



- 물병의 6가지 특징
1. 향산화
 2. 풍부한 아연
 3. 알카리 밸런스
 4. 작은 물 분자 클러스터
 5. 열소계거
 6. 음이온
- 건강에 필요한 것 충족

좋은 물 마시는 습관을 위해, 파이물립!
* Classy Style Bottle의 디자인
* 클래식 스타일 캡은 복유림의 감성을 더해 심플하고 기품있는 디자인으로 구현하였습니다.
* 한 손에 들어오는 크리로 그림감 또한 뛰어납니다.
* 가벼운 스텐레스 재질로 휴대하기 편리하며 등산, 여행, 캠핑, 사무실, 가정 등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Classy Style Bottle의 구성
* 더블 카트리지가
* 클래식 스타일 캡은 상/하의 특별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물정선

Jacob Choi 최 제이콥 T.(310)598-0746
GOLF PROFESSIONAL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만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9).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 일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올해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무서운 재앙과 징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체포하려던 군대가 하늘의 불로 50명씩 연이어 태워졌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엘리아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기도를 통해 비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폭발적인 능력에도 약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아를 죽이겠다는 왕비 이세벨을 보면서, 엘리아는 낙심과 영적 침체에 떨어지게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와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아 선지자에게 의사와 상담자로 임하십니다. 로템나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아는 홀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다른 사람과 동역하도록 만드십니다. 엘리아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예후와 하사엘을 각각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아람의 왕으로 세웁니다. 아울러 “나만 혼자 남았다”는 엘리아에게 하나님은 바알에 저항하는 7,000명의 의인들이 남아 있음을 알려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되, 선지자가 사람을 죽이고 태우는 방법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력을 행사하는 정치가 예후와 하사엘을 부르시지만, 선지자는 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악과 싸우다가 악인과 비슷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세 가지 면에서 새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강함과 거침임으로 사역한 선지자를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임재하시지 않고, 불 뒤의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가와 엘리아와 대화하십니다. 상담자로 나타내신 하나님은 엘리아를 다시 세우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엘리아에게 동역자를 세워

아래에 있던 엘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엘리아는 새롭게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아를 상담하여 새로운 일꾼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세 가지 면에서 새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강함과 거침임으로 사역한 선지자를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임재하시지 않고, 불 뒤의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가와 엘리아와 대화하십니다. 상담자로 나타내신 하나님은 엘리아를 다시 세우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엘리아에게 동역자를 세워

사랑하는 아들이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해피 뉴이어, 장남! 명절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집에 없는 내 아들이다. 직장 때문에 제일 먼저 아빠 울타리를 떠나가던 너의 뒷모습이 오늘 따라 자꾸 눈에 밝힌다. 우리 아들이 28살 다 큰 나이인데도 왠지 안쓰럽고 때론 불안한 마음까지 드는 것은 귀찮으면 밥도 대충 먹는 성격 때문에, 나중에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의 보급자리를 떠나면서 어쩌면 시원했겠지? 엄마의 잔소리도 듣지 않아서 좋고, 아빠의 무거운 눈길도 더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좋고 평생 목사의 아들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온 너의 아픔을 아빠가 헤아리기 어렵다. 아빠는 장로의 아들로 컸지만, 내가 느끼는 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사람들이 내가 담임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고정관념을 갖고 너를 대한다고 했지? 그 기분이 뭔지 아빤 조금 이해한다. 아빠도 직업이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그 순간 시선이 바뀌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싫어서 목사라는 신분을 일부러 밝히지 않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아빠 직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너와 함께 할 것이 확실하니 불안한 마음보다는 기대가 된다.

아빠가 요즘 무슨 설교하는지 궁금하지? 너 어렸을 때, 아빠가 열심히 읽어준 다니엘서를 강해하고 있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지켰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장면을 연출할 때, 네 누나랑 내가 배짱을 잡고 웃던 모습도 기억한다. 세 친구를 풀무불에 밀어 넣던 자들은 풀무불 근처에서도 타 죽는데, 정작 불구덩이에 들어간 세 친구들은 ‘아, 시원해~’ 하면서 능청 떠는 아빠의 연기에 재미있다고 ‘아빠, 다니엘 또 해줘’ 졸랐던 것 기억나니?

아들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새벽기도회로 시작하였단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아빠에 품에 안겨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왜냐하면 아빠가 너를 업고 새벽기도하며 아빠 옆에서 잠자던 너에게 손 얹고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부족한 아빠는 너를 생각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지만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의 기도는 우리 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젊음과 장래를 걸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뜨거운 같이 버티를 가르듯이 능글름히 살아가는 것이다. 아빠랑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속에서 웃었던 아들이 이제는 아빠 옆에 없어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한다.

아들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새벽기도회로 시작하였단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아빠에 품에 안겨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왜냐하면 아빠가 너를 업고 새벽기도하며 아빠 옆에서 잠자던 너에게 손 얹고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부족한 아빠는 너를 생각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지만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아들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새벽기도회로 시작하였단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아빠에 품에 안겨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왜냐하면 아빠가 너를 업고 새벽기도하며 아빠 옆에서 잠자던 너에게 손 얹고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부족한 아빠는 너를 생각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지만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썬니 김 목사
LA씨티교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10)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찢어진 그물과 같은 공동체를 회복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있을 수 없는 슬픈 소식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모두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인데 자녀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괴로운 심정의 소리가 느껴집니다. 교회는 나누어져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기초를 세워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 받는다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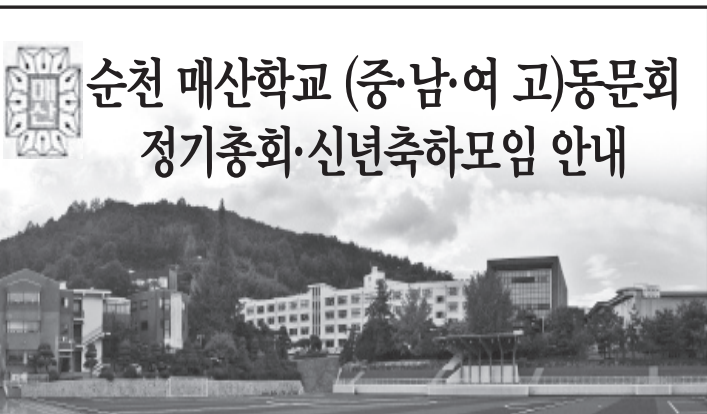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나를 보낸 분이 누구이며 왜 보내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내신 이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 한 해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은 “내가” 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만 멈춰야 할 때입니다. 내 이름, 내 실력, 내 능력, 내 물질, 내 헌신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만하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의 헌신과 내 헌신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목회자를 만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상담하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상처가 되고 깊어져 썩어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만이 썩트지 못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만 보이는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서는 내가 죽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 해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서로 각각 은사가 다르고 다른 일을 할지라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 온전히 하나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시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천 배산학교 (중·남·여 고)동문회
정기총회·신년축하모임 안내

“진리와 자유를 향한 세상의 빛” 으로 개교108주년을 맞이하는 배산(중, 남, 여고) 동문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터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하며 신년하례 및 총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8년 1월 13일 (토) 오후 6시30분
- 장 소 : J.J Grand Hotel (213-383-3000)
- 주 소 : 620 S. Harvard Blvd. LA. CA 90005
- 회 장 : 표세홍 (213-248-1143)
- 서 기 : 마원철 (909-292-7474)
- 연락처 : 9회 김혜택 (323-268-3131)
- 10회 정의일 (949-201-5637)
- 11회 김인수 박사 (223-703-7602)
- 12회 양동호 (213-500-8835)
- 15회 황규련 박사 (562-405-0401)
- 20회 김영규 장로 (949-378-5533)

팀 켈러 목사의 손에 들린 하나님 말씀의 빛

성경 읽는 예리한 관찰력과 신선한 통찰력 돋보여

팀 켈러. 찾아보니 그의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 출간된 해가 2007년이다. 아마 그의 첫 책인 듯한, 1989년에 발간된 「Ministries of Mercy」를 기독교연합신문사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이니, 첫 소개치고도 벌써 많이 늦은 셈이었다(이 책은 최근 비아도르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새 번역을 입고 다시 출간됐다).

그러다 국내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메이저급이라 할 수 있는 두란노에서 그의 책을 전담했나 싶을 정도로 꾸준히 소개하면서, 최근 수년간 기독교 출판계에서 앞다퉈 출간해내는 몇 안 되는 저자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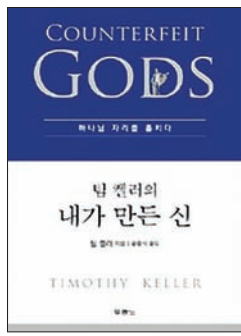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2007년부터 번역 출간된 그의 책들이 대략 25권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12월 현재까지 다섯 권이 번역 출간됐으며, 대부분의 한국어 번역서가 대개 그의 이름을 앞세워 제목을 삼는 것을 보면, 명실공히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계 해외번역서 분야에서 압도적 대세라 할 수 있겠다.

나 역시 그의 책을 사둔 것만 해도 이미 책꽂이에 몇 권이었다.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설교>를 구입했었나보다. 청년들의 직장 생활을 돕기 위해 <일과 영성>을 뒤적었던 흔적도 있다. 그럼에도 몸담고 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와 업무에 급급하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막연한 책임감이 약간은 버거웠는지, 구입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따라 진득하게 책을 읽지는 못하던 터였다.

그러던 중, 학교의 고등부 1학년 여학생이 독서 시간마다 머리를 파묻고 이 책을 읽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내 눈 앞에 책을 들이대며 '이 책 읽어봤냐고 묻는데, 기독교 대안학교의 국어교사라면 마땅히 읽었어야 하지 않냐는 누앙스였다. '그래?'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니, 엄지손가락을 척 세우며 꼭 읽어보라고 권하는 통에 드디어 이 책을, 그리고 팀 켈러를 제대로 처음 읽게 된 것이다.

소감은? 나 역시 '엄지 책'이다. 등 떠밀어준 녀석이 고맙다. 목적인 여운이다.

우선, 성경을 읽는 그의 섬세한 눈과 예리한 관찰력에서 비롯한 신선한 통찰에 무릎을 친다. 누구나 알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팀 켈러 | 윤종석 역
두란노 | 280쪽

만한 성경의 유명한 사건들에서, 그러기에 표면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알려져 있던 이야기들에서, 그들 내면에 도사리고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근원적인 우상을 파헤쳐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만 봐도 그렇다.

게다가 그것은 그저 차가운 이성적 활동만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이라 더욱 마음에 다가온다. 예를 들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던 레아를 찾아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을 헤아려준 것이나,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그 따뜻한 마음씨의 여종을 우리 앞에 소개해준 것이 두고두고 고맙다. 또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결코 오래 전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과 얼마나 적실하게 관련돼 있는지 잘 보여주는데, 그 연결이 자연스럽고 풍부하다. 아니, 연결이라기 보다는 통합에 가깝다.

본문으로 삼는 성경 이야기들과 거울처럼 유사한 현대판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으로 각 장을 시작하는데, 멀게는 4,000년 전, 가깝게는 2,000년 전 이야기들을 오늘날로 소환해내는 그의 소환술은 독자로 하여금 금세 책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한다.

그리고 그 옛날의 이야기가 여전히 오늘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불현듯 직면할 때, 그는 우

리 모두에게 나단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도 쉬이 발견하기 어려운 우리 안에 내재한, 우상을 향한 교묘한 경향성을 들춰내고 그것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는 영적으로 숙련된 외과의사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한 분명한 복음 제시는 이 책에서 백미다. 구체적인 우리네 삶과 무관한 듯 보이는 관에 박힌 명제적 구원 공식이 아니다. 복음이신 우리 구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교묘히 하나님 자리를 훔치고 은밀하게 파르튼 여러 모양의 거짓 신들을 거침 없이 쫓아내는 빛이요 참 되신 하나님을 선행하게 드러낸다. 희끗하고 불분명한 형태의 모조품 신들이 폭로되니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확실하게 부각되는지!

이렇게 보면 오래도록 아들을 바라온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귀하신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든지, 사랑에 목말랐던 가련한 레아의 이야기에서 참된 신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자신의 근원적 우상을 경배하던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울 때 그분의 영광은 더욱 찬란하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복음 진리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리하여 이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참된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팀 켈러의 손에 들린 이 하나님 말씀의 빛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우상들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아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취하고 나니 무슨 영적인 수술을 받은 것 마냥 몸과 마음이 새롭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사랑스럽다. 그분만 더욱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다. 결과를 보니, 과연 좋은 책이다.

나상엽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신약시대 헬라어 이해 위한 방대·세밀·풍성한 최고의 사전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바우어 헬라어 사전



바우어 헬라어 사전
발터 바우어 | 이정의 역
생명의말씀사 | 1,720쪽

다. 제5판을 영어로 번역한 영역본이 BDAG 판이다. 이제 <바우어 헬라어 사전>이 독어에서 직역됐으니, BDAG 사전은 힘을 상실한 것 같다.

그럼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이 책이 가진 독특성은 바우어의 <초기 기독교의 정통과 이단>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곳에서 바우어는 초기 기독교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통을 가진 집단이라고 주장한 교부들을 반박한다. 이러한 주장은 초기 기독교의 문헌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해 했다. 교회가 인정한 교부 문헌부터 외경으로 밀려났던 초기의 수많은 문헌들을 대조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빠르게는 3세기 중반, 늦게는 4세기까지 적지 않은 교부 문헌들이 헬라어로 기록돼 있다. 이후 점차 라틴어로 넘어가게 된다. 이나 시오스의 <일곱 편지>,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디다케>의 경우 모두 헬라어로 되어 있다. 1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교부 문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용되는 단어나 교리적 색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미세한 변화를 잡아 준다. 이 책은 책 자체에도 위엄이 있지만, 번역 과정 속에서 한마디만 불가능했을 기적을 이룬 셈이다.

이곳에서 편집 과정을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진액이 나올 만큼 과도한 수고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 서문에서 읽을 수 있다.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도 기적에 가깝다. 역사 이정의는 빌헬름 게제니우스의 <히브리어 아랍어 사전>을 심장수술을 하면서 번역했다. 이 사전만 해도 역작(力作)이지만, 2006년 현존하는 최고의 헬라어 사전인 발터 바우어의 사전 번역을 시작한다. 그러나 2010년 암이 발병하여 위를 절개한다. 결국 2016년 5월 10일이 넘는 세월을 지나 번역의 대장정을 마치게 된다. 그리고 편집에만 거의 2년을 쏟아부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책 자체에도 위엄이 있지만, 번역 과정 속에서 한마디만 불가능했을 기적을 이룬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뜻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방대하다. 이 사전은 그 어떤 헬라어 사전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둘째, 세밀하다. 이 세밀함은 자세함을 넘어 미묘한 차이를 분석하는 예리함이다. 셋째, 성경 안과 성경 밖의 용례를 살핍으로 단어의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정현욱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2018년 신년하례회



새해가 밝았습니다.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 신년 하례회를 아래와 같이 모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문 제위께서는 귀한 하례회에 모두 참여하셔서 동문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주소 및 연락처

주후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 [김혜성 목사(48회) 시무]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회장: 213.248.1143, 서기: 714.321.4678,

증경회장: 장 익 목사(49회), 조해수 목사(58회), 이정현 목사(71회), 윤성원 목사(61회), 강영석 목사(61회), 정고영 목사(54회), 석태운 목사(64회), 김혜성 목사(47회), 윤태근 목사(77회)

자문위원단: 김상규 목사(58회), 김혜성 목사(47회), 이배형 목사(49회), 전동식 목사(53회), 정고영 목사(54회), 한원업 목사(55회), 최낙일 목사(55회), 강승계 목사(61회), 강영석 목사(61회), 안태문 목사(62회), 김삼도 목사(63회), 김흥기 목사(63회), 오병식 목사(63회), 박노철 목사(66회), 유응연 목사(67회), 유복석 목사(68회), 이정현 목사(71회), 정완기 목사(73회), 정희주 목사(75회), 윤태근 목사(77회)

주후 2018년 1월 5일

재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장 표세흥 목사 서기 임군만 목사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지급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50개 \$20) 왕만두, 팔짚빵(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지독한 코골이 증상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자궁축, 하혈)
 TMJ 턱관절 장애

우울증
 관절염, 다리 쥐 오름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 파우더 3달분 \$60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처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끄러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sa.edu
 www.chongshinus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까지 제자를 심어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감람산의 모습



감람산에서 볼 수 있는 성의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57)

메시아께서 오신 감람산

전략적 요충지

예루살렘은 유대 산악지대의 중간에 위치한 산지에 형성된 도시이고, 감람산(올리브 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동산이다.

고대 예루살렘은 지금의 옛 성이라 부르는 성전 산의 남쪽 키드론 골짜기(Kidron Valley)를 끼고 언덕에 형성된 도시였다. 예루살렘의 동쪽, 키드론 골짜기 건너에 위치한 감람산은 생각보다 조그만 산봉우리로 옛 성 예루살렘이 해발 600-700m 정도가 되니 감람산은 예루살렘 옛 성보다는 100m쯤 높이 솟아 있다. 감람산은 해발 815m(2,710ft)로 서쪽으로 예루살렘 성, 북쪽은 Mt. Scopus(826m) 봉우리, 남쪽으로는 멸망산 봉우리, 동쪽으로는 베다니를 지나 유대광야로 내려가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

옛 성에서 볼 때는 키드론 골짜기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형국인데 동쪽에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 올 때 1차 방어선이 된다. 그래서 왕국시대에 이곳은 적군과 싸우는 중요한 요새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곳의 방어선이 뚫리면 예루살렘이 위협해지는 것이다.

이곳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울면서 도망쳤던 곳이기도 하다.(삼하15:30, 16:1-30) AD 70년 로마에 대항하여 싸운 1차 유대인 항쟁에서 이 산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곳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기 때문이다.

감람산의 동쪽 기슭으로는 유대 광야가 펼쳐지고 유대광야를 지나면 사해까지 이른다. 날이 좋으면 건너편 요르단의 느브산까지 감람산에서 볼 수 있다.

감람산과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Olive Tree)가 많아 감람산이라는 지명이 붙었을 정도로 이곳은 올리브 나무가 뻗뻗하게 심겨진 동산을 이루고 있다. 올리브 나무는 팥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리브 열매다. 우리가 먹는 감치처럼 올리브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식재료였다.

올리브 열매를 맺는데 갈아 기름을 짜서 음식에 사용하기도 하고 상처에 바르는 소독제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화장품의 용도로까지 사용하였다. 또한 각 가정의 등잔에 기름으로 사용되었으며 성전에 있는 등대의 불을 밝히는 재료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올리브 나무는 당시에 정말 긴요하게 사용되었던 나무였던 것이다.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은 지중해변의 나라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나무로, 석회성이 풍부한 땅에서 잘 자란다. 지금도 지중해변의 여러 나라에서 올리브 나무가 재배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유대 산악지역 특히 아람 지역에서는 이 나무가 주요한 산업자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아마 고대로부터 감람산의 감람농

원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기름과 나무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과 무덤들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로 올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곳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고 예언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감람산을 지나 키드론 골짜기를 건너 황금 문을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감람산 맞은편에 황금 문이 지금은 닫혀있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감람산을 선지자의 산이라고 하기도 한다.(스가랴14:4, 8)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은 언젠가 감람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때 부활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감람산은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예루살렘의 공동묘지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이곳은 정통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된다. 스가랴 선지자를 비롯하여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의 무덤이 감람산 꼭대기 밑에 있다.

예수께서 들어오셨던 감람산

솔로몬 시대에 이 산 남쪽 봉우리에 후궁들의 우상 숭배 제단이 세워졌다. 감람산 남쪽 능선에 있는 작은 봉우리를 멸망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곳은 솔로몬의 후궁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멸망의 가증한 것들과 메시아 오심의 두 장면이 겹쳐지는 산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마지막 날들을 이곳에서 제자들을 교훈하면서 보내셨고, 이 산의 동쪽 벧과 겻에서 오셔서 이 산을 가로질러서 쪽 기슭으로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마21:9) 열한 제자와 더불어 감람원(서쪽 기슭)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으며(마26:36-56) 잠하셨던 곳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감람산 정상 부근에서 승천하셨다.(눅4:50, 행1:6) 때문에 감람산은 치욕의 산이기도 하고 영광의 산이기도 하다. 예수님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성 안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감람산에 머무신 것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 것이다.

오늘날 감람산에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뻗뻗이 들어선 정통 유대인들의 무덤(이 가운데 상층부에는 학개, 말라기 선지자의 무덤도 있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다. 둘째는 각종 기념 교회들이다. 정상 부근의 승천 돌을 비롯하여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마리아교회(교회 지붕이 양파처럼 생긴 러시아정교회), 겻세마네 동산 만국교회, 마리아 무덤교회, 겻세마네 동굴교회 등을 만날 수 있다. 감람산과 키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는 스테판교회(그리스정교회)도 있다. 수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더듬어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산 기슭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2,400년 동안 무덤을 쓰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무덤들 사이에서 무덤이 주는 죽음과 쓸쓸함 고통을 벗겨내고 빛과 소망과 영생으로 걸어가셨고,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계속>



올리브 나무



감람산의 무덤 모습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7년 겨울학기 신(편)입생 모집

12월 21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치유와 회복이 있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 치유예배

Healing & Happiness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참, (진리의 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 신학대학교
- 신학과(B.A) | 126학점
-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위기의 기독교? 우리가 위기 넘어설 오솔길 되자

[신년 대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박사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신년을 맞아 이 시대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박사를 최근 한국 영인문학관에서 만나, 교회와 기독교, 성경 읽기, 기독교의 위기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다음은 이 박사와의 일문일답.

하고 주님으로 향한 조건 없는 믿음과 열정 또 하나의 열병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요.

-지난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많은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이 세례받은 지 10년째였습니다.

저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한 딸 민아와 세례를 해 주신 하용조 목사님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 치면,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잃어버린 십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서러운 것은 그러한 상실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한 십년이라는 데 있습니다. 딸도 목사님도 병고를 치르느라 힘이 들었고 거기에 남의 아픔까지 짊어지고 가시느라 힘든 이 속세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가신 것이 큰 축복인데도 왜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터지는지... 역시 저에게는 신앙의 힘이 부족했던 문지방에서 서성거린 십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기야 제 자신의 차례가 되어 지금 투병중이지요. 내 몸 가까운 곁에서 잡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질병인 게지요. 그러나 나의 신앙이 조금만 두터워진다면 주님이 제 머리맡에 계시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많은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지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불사(不死)의 존재라면, 생명이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 또한 존재하지 않지요. 수술을 세 번이나 하고 내 바로 코끝에서 죽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나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던 것이지요.

십자가란 곧 죽음입니다. 형틀이고 그것에 매달리게 되면 누구나 죽게 됩니다. 교회에 걸려 있는 무수한 십자가의 상징은 바로 죽음 속에서 생명이 부활하는 주님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 십자가(十字架)는 바로 십자로(十字路)이기도 합니다. 사방으로 뿔려 있는 교차점입니다.

하박국의 처절한 메시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에게는 '루터 다시보기'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요. 아주 사소한 일부터 말입니다. 루터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왜곡된 종교가 있을지 모릅니다. 잘못 알려진 루터, 개신교의 정신 등... 사실 루터는 겁쟁이었지요. 애초부터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고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부모님을 만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스토테른하임 근처 별관에서 난데없는 벼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목숨만 살려주면 수도사가 되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구도와 신앙의 삶이 엄청난 종교개혁의 태풍의 눈이 되어 세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천둥벽력(雷打)이 낫전을 때려도 놀라지 않는,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오백년의 세월이 흘러도 불멸의 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루터의 힘에는 26명의 '납병정(알파벳 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인쇄 혁명 미디어의 혁명이기도 했지요. 사원의 대리석과 조각들을 성경의 문자들이 압도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지요. 동시에 당시에 일어났던 농민 혁명, 민중들의 정치혁명도 일어났고요.

인간 세상에는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혁명에는 변수가 생기고 애초의 초심대로 되지 않는 굴절이 생겨납니다. 오늘의 교회가 500년 전 개혁하려던 당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인간 자신의 힘으로 초월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인간은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혼자서 존재할 능력이 없어요. 외부의 아무런 영향도 의존도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는 유일자이고 절대자인 하나님이지요. 무신론자들이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인정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



이어령 박사는 "지난 1년간 극한의 상태에서 한 해를 보냈지만, 끝없이 책을 쓰고 강연도 하면서 보냈다"고 말했다.

나 그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내 자신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ego eimi, 내가 있다)'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인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시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서로 맞물려 존재합니다. 지구는 태양을, 태양은 은하계를... 별들의 무덤인 블랙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우주를 벗어나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낸 창조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적 논리이지요. 타자 없이 홀로 존재하는 자족적인 것.

그래서 노자는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도는 자연을 따른다는 말이지요. 문자 그대로 자연(自然),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자족(自足),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바렐라(Varela) 같은 생물학자가 내놓은 최신 이론으로 보면, 밖에서 인풋(input) 없이도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과 같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 빵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입니다. 광야에서 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말했는가. 야곱의 우물

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열역학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 영구한 게 없습니다. 모두 소멸하지요.

-기독교만이 그 본질을 갖고 있군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다는 말을 함부로 써선 안 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제도를 고치고 고쳐 봐도 새로운 제도가 생겨날 뿐입니다. 베드로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순간, 옛날과 다를 것이 없는 종교라는 또 하나의 인간이 만든 제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마시스트들이 외친 '영구 혁명', 혁명을 해서 고치는 순간 또 혁명을 하는, 끝없는 그 길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사회적 비난과 핍박과 비판 속에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는 그런 교회는 일찍이 지상에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기독교의 메시지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개신(改新)'할 필요 없는 기독교가 이 지상에 이뤄졌다면, 그야말로 지상에 하늘나라를 만들어 세운 것이니까요.

성서에서 언제 이 지상에 낙원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어가 기적이고 하늘의 뜻이라면 왜 예수님이 구름떼처럼 모여든 군중을 보고 산으로 피신하셨

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돌맹이로 빵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오병이어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예수로 잘못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으면 죽는 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혁신되어야 하고 세상의 비난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속적 의미의 개신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되찾는 개신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들로 빵을 만들어주는 '빈자의 빵공장'처럼 알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는 것이 교회라고 본다면, 구름떼처럼 군중이 모여 오겠지만 그 교회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것을 교회의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이상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해 이미 '디지로그, 생명자본' 같은 데서 예견한 글을 쓰셨는데, 그 시대의 기독교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500년 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계시지요. 우리가 정말 달라져서 신처럼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완벽한 것이



내가 낸 후원금이 과연 제대로 쓰일까?

원어나더 (서로서로 One Another)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후원금 한푼 한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미답지 않아
망설이시는
분들께

1. 원어나더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최빈국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말라위의 농촌지역 교회와 연계해서 추진됩니다.
2. 원어나더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 편익상 후원회나 후원개인을 '원' One으로, 후원받는 아프리카의 교회를 '어나더' Another라고 부르겠습니다.
3. 교회 주위에 살고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노약자 등에게 생존에 가장 시급한 식수 공급이나 농사 지원 등 구체적인 서비스를 Another 교회의 교인들이 제공합니다.
4. 서비스에 할애된 시간에 대해 One은 시간당 미화 25센트씩을 Another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가령 한달 동안 도합 600시간이 할애되었다면 150불이 될 것이고 200시간이라면 50불이 될 것입니다.
5. One과 Another는 WhatsApp이나 Skype, KakaoTalk등과 같은 SNS수단을 통해 직접 소통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내역과 후원금 지급과 수령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6. 이를 통하여 지역교회가 전도와 구제의 고유 사명을 자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구나 한푼이 아쉬운 가난한 교회 교우들이 얼마간의 현금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7. 미국의 절그릇교회(김태길 목사 시무, Placentia, CA, 714-910-4914)와 말라위의 Majanga 교회(265-999296094)가 지난 석달 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았습니다. 가장 교회를 통해 듣게된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8. One은 언제든지 직접 Another 교회를 방문하여 사역을 확인하고 동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9. 2002년 이래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Crops of Love Ministries, USA가 One과 Another를 연결해 드리고 편의를 위해 후원금 송금 등을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사랑의 곡식 선교회 Crops of Love Ministries, US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14-732-1687, cropsoflove@gmail.com, www.cropsoflove.com
 Crops of Love Ministries USA, Inc. is a registered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TAX ID: 27-1887065) All donations in the US are tax deductible in full or in part.

위 기관은 미국 국세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며 후원금은 세금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P. O. Box 5615, Fullerton, CA 92838으로 체크를 보내시거나, 은행송금이나 자동이체를 하실 분은
 Chase Bank, Buena Park branch,
 Account number: 892791125, Routing number: 322271627

인터넷 검색창에 '김용진, 말라위' 넣으시면 저희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역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란 없는 이 세상을 보고 '정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했구나, 낙원이 있었구나' 거꾸로 아는 것이지요. 빛을 본 자만이 어둠을 알고, 죽음을 아는 자만이 생명을 알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요즘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거꾸로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신앙인들도 교회는 나가지 않는 시대, 교회는 이 사회와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능성이 많습니니다. 뒤집어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 뒤집어 읽으면 됩니니다(웃음). 그제 바로 예수님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부정하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미 아니까 안 나가는 것이지요. 다녔으니 알고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은 <탕자, 돌아오다(탕자의 비유)>처럼 반드시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뒤집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면, 또 다시 뒤집으면 됩니다. 하지만 원래 안 나간 사람은 뒤집으면 더 나빠질 수 있지요.

'안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어머니가 믿으니까,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가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스스로 박차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탕자, 돌아오다>의 형을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뛰쳐나가는 게 싫었습니다. 돼지나 주는 야생 열매를 먹고 고생하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면 비로소 아버지가 잡아주는 양고기의 맛이 어떤 것인가를 알겠지요. 매일 양고기를 먹던 형이 알겠습니까? 다만 상속자로서 권위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집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네 둘째, 탕자는 아니었어요. 진리를 찾아 떠난 것이지요. 이 집 바깥에 아버지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보다', 그것이 구도(求道)입니다. 끝없이 도를 구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으니, 한국교회에 몇십 년 후에는 다시 르네상스가 오겠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뛰쳐 나가십시오. 탕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이사가지 말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려야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웃음)?

-비록 '문지방'에서 있다고 고백하지만, 아예 문지방 바깥에 계셨던 과거와 비교해 성경 읽기에 있어 흑달라진 점이 있으신지요(이여령 박사는 세례를 받은 후 '문지방'을 넘어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

히 '문지방' 위에서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편집자 주).

변한 건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성경에 이리저리한 모순이 있어서 믿지 않았다면, 지금은 여전히 모순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믿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지요.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면?'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왜 다 다른가? 그럼 그중 어느 쪽은 틀린 것 아니야?' 이렇게 공박했다면, 지금은 틀린 걸 보니까 이게 진짜라는 것이지요.

대개 범인(犯人)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정확합니다. 입을 맞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진실이라면, 자신이 한 말조차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인이 심문을 받는데, 피해자를 만난 시각을 정확히 기억한다? 꾸민 것이지요.

그러니 성서가 무오류이고 정말 이치에 닿는 소리만 나와 있다면, 가짜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하게,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읽었다는 자체가 진짜라는 것이지요.

성서를 보면 삼척동자도 웃을 이야기들이 수도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정확히 옮겨진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어떻게 절대자의 말이 불완전한 사람의 언어로 다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남기셨지만, 인간에게 번역된 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위로 보여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한 드라마, 행위는 '사건(事件)'입니다. 물건(物件)은 보이지만, 사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행위는 물건처럼 남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로 남거나 동영상으로 찍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번역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프랑스에 있을 때, 병원에 갔는데 '배가 따끔따끔하고 육신육신하다'는 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의사 같으면 말만 해줘도 낫겠는데(웃음). 배가 쓰러다. 배가 쌀쌀 아프다. 배가 더부룩하고 목직하다, 번역이 됩니까? 사람의 말도 다 번역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옮겨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하늘의 말과 지상의 말이 같을 수 없습니다. 번역 가운데 이상한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 성서를 낱말의 부분으로 읽지 말고 전체적 행위의 언어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제가 믿기 전에 가장 거부반응을 가졌던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첫째, 배는 물이 들어오면 뜨기 마련인데, 왜 산꼭대기에서 만들라고 하셨을

까요? 심술이라면 몰라도, 물 들어오면 알아서 뜨는데 말입니다.

둘째, 짐승 암수 두 마리씩 넣었다면 서요? 그러면 암수 없는 단성 생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초식·육식 동물을 다르게 만드셨는데, 두 마리씩 넣는다 해도 토끼와 늑대, 호랑이와 사자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남극·북극에 사는 동물들이 어떻게 노아가 사는 곳의 동물들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방주가 커도, 지금의 동물원처럼 분리해 놓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초식동물에게 지푸라기 넣는다 쳐도, 육식동물에게 고기를 넣어주려면 씨가 마를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생물 아니예요? 하늘 아래 생물은 전부 멸하겠다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물고기는 방주에 넣으면 다 죽을텐데.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은 비가 어디서 왔는지 물으면 '그때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다르고...', 육식동물 이야기하면 '옛날 육식동물들은 없었고 풀을 뜯어먹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곧이 들어도, '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닌가?'라고 비웃었던 것이 중학생 시절 읽었던 성경이었지요.

제가 기초학을 했지만, 성서를 '메타언어(대상을 직접 서술하는 언어 자체를 다시 언급하는 한 차원 높은 언어 - 두산백과)'로 읽으면 노아의 방주는 '제2의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만드시고 안 되니까 끌어내리고 다시 새 질서(코스모스)를 세우신 것이지요.

제1창조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제2창조는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생물들을 분류하여 칸막이를 해놓은 서랍장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의 시간을 만드셨다면, 이번에는 공간의 칸막이(분절)을 만드셨습니다. 너는 호랑이, 너는 사람 하면서 '분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류하시네' 분이십니다. 혼돈이란 분류되지 않은 거예요. 창조란 무질서했던 우주에 질서를 부여한 것입니다. 첫 창조가 시간적 질서, 노아의 방주는 공간적 질서,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혼란 상태에 시간적·공간적 질서를 주시으로써 남자·여자, 하늘·땅, 유행·무형 등 모든 걸 만드신 것이지요. 그것이 '로고스(logos)'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요 1:1)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물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로고스, 즉 이성(정수)은 전부를 만드신 것입니다.

차이를 나타내 준다는 것이 어려운가요? 예전 전쟁 때 서울 종로가 다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없어졌나요? 아니지요. '종로'는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을지로'와

의 차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게 물질도 에너지도 아닌 상징 즉 로고스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물건 만드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에게, 만드신 창조물에 이름을 지으시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이 생긴 것이지, 빌딩을 계속 지어서 서울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로고스, 빛과 어둠을 갈라놓는 거예요. 물과 물을 갈라놓으셨지요? 두루뭉술한 을지로와 종로를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 종로 하면 집만 보러 다닙니다(웃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유신론과 무신론,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말하지만, 해당 분야에서는 '특별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따뜻한 가슴으로 공감하고, 사람이 다치면 울고 때리면 말리는 바보가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제 성서 해석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동그란 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보면, 동그랗게밖에 안 보입니다. 성서는 넓은데,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만 성서를 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체형이나 지식만으로 하늘을 재단한다면, 하늘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간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고향 먹이느라 성경 속에서 설명 못할 것들만 계속 따와서 질문했습니다. 저는 당시 성서의 잘못을 지적했다기보다, 성서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브리스(hubris·자만심, 오만)'입니다. 오만하게 잘난 체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오만,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범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 성경 읽기가 너무 재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지 않던 것이 읽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나는 새와 땅에 핀 백합화를 보라, 거두지 않고도 먹고 길쌈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옷을 만든다. 그런데 너희는 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책 이야기는 안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새도 동지가 있지 않느냐'고도 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아, 역시 예수님은 '노마드(nomad·유목민)'이셨구나. 사는 집은 별 문제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경 민족이니 먹고 입는 게 없어서 집은 있어야 하지요. 저번에 어떤 분과 이 이야기를 했더니 '기독교 30년 믿고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셨지요.

-2018년을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덕담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평신도로서 기독교를 비판해 달라고 했지만,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새로운 기독교를 말할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지만,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말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오만하고 순수한 척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남의 눈 속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 속의 들보를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 눈의 들보를 놔두고, 마치 자신은 아니라는 것처럼 기독교를 비판함으로써 알리바이를 만드는 자는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우리는 비난받는 이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큰 소리로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넌크리스천'이요 비난받아야 할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더구나 교회는 한 집 건너 식으로 늘면서 경쟁도 늘어납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되면 '다운(down)'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과 기독교의 융성이 같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아주 드문 나라입니다. 잘 살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나라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진짜 교인들이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면 사람들도 오고 구제도 받으러 온다고 생각했는지, 사이비나 기독교 같지 않은 기독교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이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지, 나 아닌 것은 사이비고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기독교가 가장 어려운 고비에 봉착한 이 위기를, 스스로 넘어설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이 되고 기둥이 되는 한 해가 되어 기독교의 위기를 극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사실입니다. 권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회예요. 믿었기 때문에 실망이 육으로, 하나의 비난으로 쏟아지는 역작용을 일으킬 때가 옵니다. 그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잘 지나서 희망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김진영 기자

미주 제 66차 성경완독집회
2018년 1월 22일(월)~25일(목)

3박 4일

성경 66권 완독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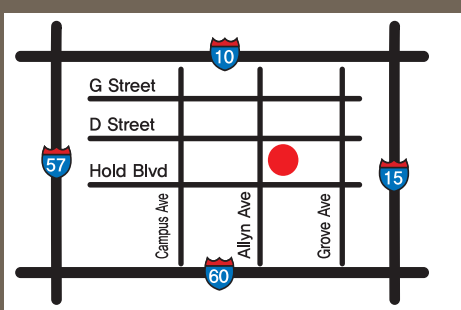
새해, 첫날 성경66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해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 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니다. 성경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숙식 제공
집이 가까운 분은 집에서 왕래 가능

- | | |
|---|--|
| 일시 2018년 1월 22일(월)~25일(목) | 참가비 1인당 \$70(숙식비 포함), 부부 \$100 |
| 장소 갓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Tel : 909.983.0994 / Cell : 909.268.4279 | 등록 1월 22일(월) 당일 오전 9시~10시 |
| 주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
|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 개회예배 1월 22일(월) 오전 10:00 |
| | 수료식 1월 25일(목) 오후 6:00 |
| | 특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다윗의 경건생활 모범 |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 (909)983-0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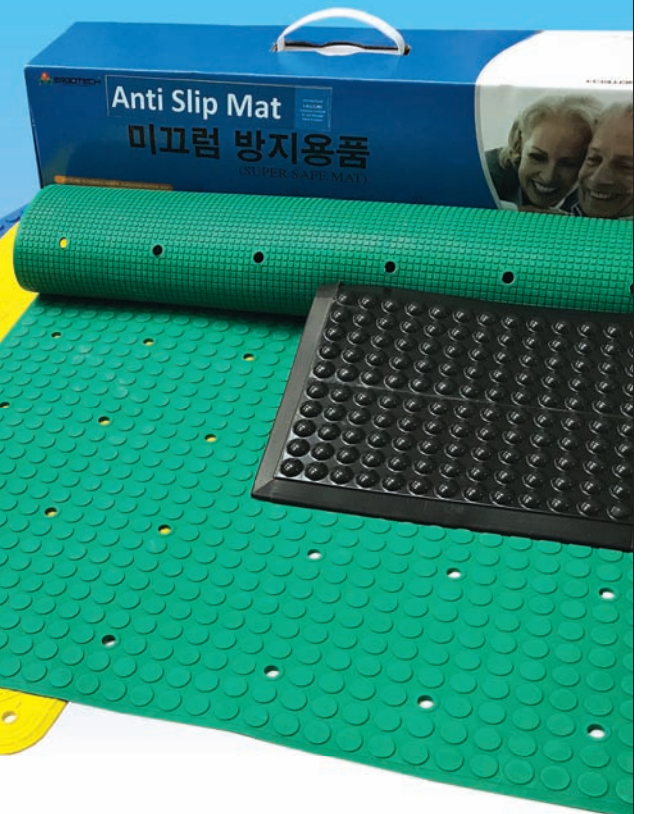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주최 : 말씀사랑운동미주요한선교단(대표:안성기) 장소 :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 Tel:(909)983-0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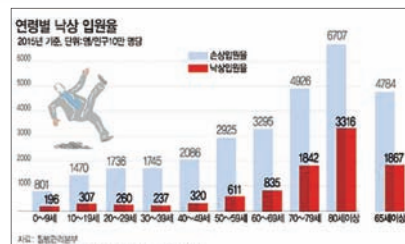
피로야 가라! 피로방지매트 (Prevent Fatigue Mat)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70%이상 피로 감소, 피로방지,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작업안전 증대, 미끄럼 방지, 충격흡수, 생산성증대, 노종자 보호, 관절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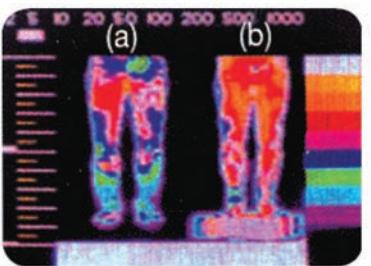
목사님!
목회자
특별할인 혜택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미끄럼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열영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 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 (a)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의 경우
청색과 녹색이 종아리에 몰려 분포되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현재 근로자가 원활하지 않은 근육활동과 혈액순환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 한 경우
붉고 노란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피로방지 매트의 독특한 인체공학적 설계의 탄력적 특성과 재질로 인하여 근육 및 혈액의 순환이 원활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미국판매기념 특별세일

<p>E- MAT</p> <p>피로방지용 사이즈 3ft + 2ft \$123 \$176 +tax 30% Off</p> <p>* 사이즈와 모양을 설치 장소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p>	<p>SAFE KOREA MAT</p> <p>세이프코리아매트 (Safe Korea Mat) 사이즈 80cm+40cm \$75 \$60 +tax</p>	<p>NEW SUPER SAFE MAT</p> <p>슈퍼세이프매트 (Super Safe Mat) 사이즈 92cm+42cm \$90 \$72 +tax</p>
	<p>SAFE MAT</p> <p>사이즈 80cm+40cm \$95 \$76 +tax</p>	<p>SUPER SAFE MAT</p> <p>사이즈 3ft + 2ft \$145 \$116 +tax</p>

약국, 식당 주방, 가정집, 일반 소매점, 웨일하우스, 메뉴팩처, 디자인 하우스 등 서서 일하는 모든 사업장 자동차 공장 등 산업시설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 설치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